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 생보사, 신용평가 등급 제고에 안간힘

- 미국 생보사들은 자기자본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과 동시에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AIG가 지난 9월 미국 정부로부터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자금구조의 건전성과 재무적 유연성 제고를 내세워 약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음.
 - 최근 Met Life는 신주발행을 통해 20억 달러의 자기자본을 보강하고, Hartford는 Allianz로부터 투자형식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수혈을 통해 자기자본을 강화하기도 함.
- 한편 시장의 신뢰는 상당부분 평가기관이 좌우하는 바가 큰데, 10월 들어 Fitch는 생보산업 전체에 대한 전망을 ‘안정적’에서 ‘부정적’으로 낮추었고, Moody’s 역시 부정적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 생보사 주식 가격이 크게 변동하였음.
 - 물론 생명보험산업이 다른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비해 부실담보대출에 대한 노출도 적고, 보다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
 - 투자손실과 악성대출로 인한 손실 증가 및 변액연금 원금 보장을 위한 헤징 비용 증가와 아울러 경기불황 도래와 주식시장 침체 등은 미국 생보산업을 적어도 12~18개월 동안 압박할 것이라고 Moody’s는 전망한 바 있음.
- 이에 이들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중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, 때 이른 경고는 자칫 피 평가기관의 재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고, 너무 늦은 경고는 최근의 금융위기 경고에 대한 실기와 같이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은 더 이상 시장과 동떨어진 관찰자가 아닌 시장의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음.
- 따라서 피 평가기관인 생보사들은 이들 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이 중시하는 재무건전성을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현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는 A.M. Best로부터 B⁺ 미만의 등급을, Fitch로부터는 BBB⁻ 미만을, Moody’s로부터는 Baa3 미만을, S&P로부터는 BBB⁻ 미만의

등급을 받고 있는데, 9월 현재 ‘긍정적’ 등급이 아닌 ‘중립적’ 등급과 ‘부정적’ 등급을 받은 비율은 전체 생보사의 80% 정도에 해당하여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- A.M. Best는 965개 생보사에 대한 등급을 심사하여 단지 3.8%인 37개사만 최고 등급인 A⁺⁺(superior)를, 15.4%인 149개사에게는 A+(excellent)를 부여
- Standard and Poor's는 361개 생보사에 대한 등급을 심사하여 단지 5.8%인 21개사만 최고 등급인 AAA(extremely strong)를, 6.4%인 23개사에게는 AA⁺(very strong)를 부여
- Moody's는 188개 생보사에 대한 등급을 심사하여 단지 3.2%인 6개사만 최고 등급인 Aaa(exceptional)를, 5.9%인 11개사에게는 Aa1(excellent)을 부여
- Fitch는 317개 생보사에 대한 등급을 심사하여 단지 3.2%인 10개사만 최고 등급인 AAA(exceptionally strong)를, 14.5%인 46개사에게는 AA⁺(very strong)를 부여

□ 또한 A.M. Best는 지난 75년 동안 A⁺⁺ ~ A⁺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온 보험사는 14개에 불과했다고 보고함.

보험사	등급	보험사	등급
Aviva Life	A+	New York Life	A++
Beneficial Life	A	Northwestern Mutual Life	A++
Country Life	A+	Penn Mutual Life	A+
Genworth Life	A+	Principal Life	A+
John Hancock Life	A++	Standard	A
Met Life	A+	Union Security	A
Nationwide Life	A	Western Southern Life	A++

(Insurance news net, 11/18)